



5면

'전주 독립영화의 집' 첫 삽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음 1월 28일) 제368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도민과 함께 전진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군 연두방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24일 오전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강당에서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2036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무주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무주군민과의 대화에서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올림픽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남원·무주와의 협력, 도민 행복 토대”

김관영 도지사 2025년 시·군 방문 - 남원·무주

남원서 노인복지관 건립·경찰특화도시 조성

무주에서는 태권도사관학교 국책 추진 등 논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한계를 넘어 더 큰 도전으로!, 도민과 함께 전진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시군 연두방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24일 남원시와 무주군을 찾았다.

이날 오전 남원시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자리로, 다양한 현안과 정책 방향이 논의되었다.

먼저 김 지사는 남원시의 발전 방향과 지역 현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및 남원시의원들과 환담을 나누고 이후 남원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2025년도 남원시 운영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 경제 회복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남원시민 500여명을 만나 '도전경성의 초심, 도민약속의 실천'을 주제로 도정 운영방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장기적인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이날 특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 원칙과 주요 사업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남원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도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생 중심의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남원시 노인복지관 건립사업 △경철특화도시 조성 △운봉읍 중심지까지 지역특화 도시 재생사업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 등 남원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전북은 남원과 함께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면 전북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란면서, 앞으로도 전북과 남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도지사님의 방문을 통해 남원의 미래 발전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남원이 전북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김관영 도지사는 무주군을 방문했다.

무주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무주군민과의 대화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등 군민 3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황인홍 군수는 “녹색지 않은 환경속에서도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을 이루는 새로운 전북 건설에 앞장서주고 계시는 지사님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세계 관광청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을 한국 후보로 선정이 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수도를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자연특별시 무주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 등 국가교통망 계획이 수립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도지사 공약이기도 한 전주~무주~김천 간 철도와 전주~무주~성주 간 고속도로를 비롯한 무풍~김천 간 대덕 도로 개량, 안성~적상 4차로 확장, 설천 심곡~두길 도로 개량 등 건설사업이 추진돼 무주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을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올림픽 홍보영상 시청과 유치 기원 퍼포먼스 이후 진행된 특강을 통해 김관영 도지사는 “자연친화형 야간관광 진흥도시, 무주 향로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선정을 비롯해 2036 하계올림픽 추진 등 이미 무주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며 “무주와의 특별한 상상과 협력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과 도민 행복의 토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자”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초지일관(初志一貫)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며 민생과 혁신, 실용 등의 도정 운영 원칙을 토대로 △첨단 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등 미래첨단산업, △문화산업 진흥지구 지정(무주구천동 외 3곳) 등 전북특별법 대표 특례사업,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 새만금 SOC,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등 주요 공모 도전,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올해 추진할 핵심 프로젝트를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한편, 귀농인, 태권도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해 참석한 주민들은 △산규마에 에코빌리지(2차)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미확보분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줄 것과 △국제태권도사관학교(태권도 종합수련센터) 설립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공모 준비 중인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이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중부내륙발전 종합계획에도 무주 관련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무주군 성장을 이끌어달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주군민과의 대화에 앞서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는 무주군청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오해동 기획조정실장이 △‘자연특별시 무주’ 도시브랜드 정립 등 2024년도 주요 성과와 △관광개발을 비롯한 태권도 중심, 도시브랜드 가치향상, 정주 여건 개선, 서민 생활 안정, 청년 정착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교통망 확충 등 2025년도 무주군 주요 사업을 공유했다.

/남원=김기두 기자·무주=전문선 기자

도,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

대응반 구성 첫 회의

기업 피해 최소화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반’을 구성하고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3월부터 시행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자동차·반도체 추가 관세 조치에 대비해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자치도 실국, 시군을 비롯해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경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전북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협력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지역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공감하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금 지원, 기술 개발 및 판로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자치도는 실국 및 유관기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지역기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유럽·동남아 시장 다변화,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우리 지역의 주요 수출 품목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 감염병 예방 ‘철벽 방어’

보건환경연구원, 감시 대상 참진드기까지 확대

고,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감염병 예방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전북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로 지정받

아, 모기와 털진드기를 대상으로 감시를 수행했다.

그 결과,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에서 ‘쯔쯔가무시균’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일본뇌염의 주요 전파 매개체인 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모기 물림 주의 홍보를 진행하

고 감염병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감시 대상을 기존 모기·털진드기에서 ‘참진드기’까지 확대한다. 이는 농촌 지역이 많은 전북의 특성을 고려해, 치명률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